

# 수출 역대 최단 4,000억 달러 돌파

한국의 8월 수출액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은 3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증가율 두자릿수, 월수출액 500억 달러 돌파, 해당 월의 역대 1위 수출액 경신이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선전 속에 8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4,119억 달러로 역대 최단 기간 내 4,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출항 준비 중인 컨테이너 선박. 사진=shutterstock

월 45.6%, 6월 39.8%, 7월 29.6%, 8월 34.9%였다. 6개월 연속 '당월 역대 1위'의 신기록과 '수출 500억 달러'(3월 537억 달러, 4월 512억 달러, 5월 507억 달러, 6월 548억 달러, 7월 554억 달러)도 동시에 달성했다.

누계 수출로도 가장 빠르게 4,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다. 기존 1~8월 수출 1위는 2018년(3997억 달러)이었다. 8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7.6% 증가해 2010년 1~8월(32.2%)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이 역대 최고 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이 꾸준히 선전하고, 바이오헬스·2차전지·농수산물품·화장품 등 신산업이 역대 최고 수출액으로 고른 성장세가 뒷받침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8월 수출입 동향에서 8월 수출액은 532억 3,000만 달러로 8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기존 최고치는 2018년 8월의 511억 8,000만 달러였다.

수출은 작년 11월 플러스 전환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 3월부터 6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월별 수출 증감률은 3월 16.3%, 4월 41.2%, 5

# 코로나에 '집콕' 늘자 배달원 수 급증

한국의 배달원 숫자가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4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택배·배달음식 등 배달 수요가 늘자 배달원 수도 10% 넘게 늘어났다.



▲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원의 수가 급증했다. 사진=shutterstock

천 명으로 늘었고, 그 해 하반기에는 39만명 까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배달원 수가 늘어난 데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콕'과 함께 증가한 배달 수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해 온라인

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17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6% 증가했다.

지난해 18개 택배 사업자의 택배 물량도 총 33억 7천 818만 9천개로 2019년보다 21% 늘어났다.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사업자들이 음식 등 상품을 자체 직원을 통해 배달하기보다 배달대행 업체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된 것도 배달원 수 증가의 요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배달원 취업자 수는 39만 명으로 2013년 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 하반기의 34만 9천명보다 11.8% 증가한 것이다. 배달원에는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음료·신문 등)이 포함된다.

2013년 상반기 29만 6천 명이었던 배달원 수는 그 해 하반기 32만 2천 명으로 늘어난 뒤 2014년 상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31만~35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상반기에 37만 1

# 서울 아파트 30대 이하 매수 비중 사상 최고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shutterstock

서울 아파트 거래가 부진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30대 이하 젊은 층의 매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일 '연합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월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신규일 기준)는 4천 646건으로, 전월(4천 240건)보다 9.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1만 6천 2건) 대비 약 70.9% 감소한 수치다. 아파트값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세금·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거래가 저조한 것이다.

그러나 30대 이하의 젊은 층 매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를 연령 대별로 보면 30대가 1천 8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1천 205건), 50대(701건), 60대(361건), 20대 이하(248건), 70대 이상(247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30대 이하의 매매 비중은 작년 8월 40.4%로 처음 40%대에 오른 데 이어 지난 7월 44.8%를 기록하면서 종전 최고치인 올해 1월(44.7%) 기록을 경신했다.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강서구(56.8%), 성동구(54.6%), 마포구(53.8%), 중구(53.6%), 성북구(53.0%), 영등포구(50.9%), 광진구(50.7%), 금천구(50.6%)에서 50%가 넘었다.

반면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위 1, 2위를 다투는 강남구(26.2%)와 서초구(34.5%)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30대 이하의 매입 비중이 작았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과 비교적 출퇴근이 쉬운 도심에서 30대 이하의 내 집 마련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